

금성리 알당, 서낭당은
새서물 짐훈장 시절에
육지에 배를 부쳐
옹기장시, 양태장스를 하여,
물배, 쇠배를 지여서
육지를 가,
경상도 태백산을 거쳐
황해도 월출산,
절라도 지리산을
불라 올 때에
애기씨를 만났습네다.
애기씨가 말을 하여,
“나를 잘 사귀고 맥여주민
장스를 잘 시겨준다.
오곡밥, 대정판 갈빗점,
수시 괴기를 맥여준다면
장스를 잘 시겨준다.” 하여,
“그거는 어렵지 아녀다.” 하여,
애기씨 요구대로
문 사 맥이니,
이력이 잘 되여,
제주로 돌아올 때는
그 애기씨가,
“나를 훈 고양이로
모시고 가라.” 하니,
짐훈장 생각으론
똑훈 것으로 생각을 혁명도,

허급을 허여두고,
올 때엔
슬째기, 몰르게
배레레 올란 보난,
그 애기썤 모녀 알안,
배에 조재기 앓아시니,
어떻흘 수가 엇었는디,
이젠, 애기씨가
짐훈장?라,
“이녁 몰르게 왔다.”고
훈두왓을 하고,
“너눔 나 때문에
잘 되였는디,
나를 안식경 가젠 허염젠.”
호령을 하니,
짐훈장은
“잘 못했네.”
빌어간다 빌어온다, 하니,
“게건, 너네 상꿋방으로
모시라” 허여,
글로부터 애기씨를
짐훈장네 상꿋방으로 모시니,
집안이 부제로 잘 되였수다.
지금은 이 조상을
칠성으로 잘 위허다가
집을 틀어부니
도실낭이 낳고 왕대도 낳니
“왕대울성 도실낭”알로
애기씨 서낭당을 우망하니,

일보제기 일좁수가
애기씨 서낭을 잘 위혀
돛는 괴기 심어주곡,
낙는 괴긴 백발술에
은낙설 놀갠 돌아주고,
좁순 빗창끝에
악근 듬북 한 듬북 미 듬북
살구쟁기를
망시리에 ㄱ득ㄱ득 담아주고.
매역도
감은암쇠 옥어지게
지어오라지곡 하니,
이 조상을 아니우망하는
좁수나 보제기가 웃곡,
만약에 이 애기씨 서낭을
아니위하는 좁수나 보제긴
이력이 아니되니,
이제??지 모두들 우망홉네다.

제일, 조손에 생기 맞은 날 택일함.

<애월면 곽지리 남무 48세 이상문님>

진성기, 『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』, 민속원, 1991, pp.591-592.